

이 석유상당량을 1988년의 세계 석유생산량으로 대체해 보면 그 크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규모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약 900만배럴/D는 사우디아라비아 500만배럴/D, 쿠웨이트 140만배럴/D, UAE 및 기타 260만배럴/D로서 이란, 이라크를 제외한 중동의 아라비아만 연안제국의 생산량과 같다.

2000~2010년 사이에 현재의 운전규모에 건

설중인 약 1억kW를 추가한 약 1,200만배럴/D에는 비OPEC의 경우에 미국 810만배럴/D, 북해 390만배럴/D, 멕시코 200만배럴/D 함께 1,400만배럴/D가 대비된다. 또 이 생산량은 아라비아만 연안제국에 이란, 이라크의 산출량을 합한 것과 같다.

원자력발전의 정지에 따른 대량의 추가수요 야기는 그것이 설사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델리케이트한 범위에 서있는 석유경제에 대해 막대한, 거의 흡수 불가능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에너지問題의 國際性 增加

Huguette Bouchardeau <프랑스 社會黨 國民議會 議員>

프랑스에서는 최근 에너지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본인은 작년 11월 프랑스 국민의회에 「에너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에너지문제 전반을 생각하면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국경을 넘는 것이 될 수 있고, 탄산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NOx, SOx에 의한 산성비, 또 선진공업국과 제3세계의 불균형한 에너지소비 등 국제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원자력에 대해서인데 프랑스에서는 현재 58기가 가동되어 총 발전전력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프랑스의 원자력도입의) 성공의 요소를 생각하면 표준화된 PWR의 도입과 설계자·메이커·사업자를 겸한 EDF에 의한 의지결정의 집중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프랑스의 상황은 특이한 것으로서 지금 프랑스의 원자력발전계획은 그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시설도 과잉된 것이 아닐까.

더욱이 프랑스가 주력이 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FBR도 우라늄의 가격이 내려가 FBR 확대의 이유중 하나가 없어졌고, 슈퍼피닉스에서 PWR의 3.4배 코스트가 되는 등 세계적으

로 호의적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대로 원자력 우위의 옵션을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본인은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코제네(전열병합) 등은 에너지효율도 높고, 에너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여러가지 외부요인에 대처할 수 있다. 앞으로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교체할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인은 원자력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들고 있다. 분명히 있지만, 그 한편 여론은 원자력세계가 폐쇄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컨센서스는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사고가 있었을때 이미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 안전에 대해서도 여론의 비판이 많다. 이 때문에 본인은 작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고도의 독립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본인은 이런 기관에 안전성 연구, 사고처리,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해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